

연의소설(演義小說) <김영철전>(金英哲傳)의 창작 방법

- 조원경본을 중심으로 본 -

김수영*

- I. 머리말
- II. 연의소설 <김영철전>과 <김영철유사>의 관계
- III.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창작 방법
- IV. 맺음말

<국문초록>

조원경본 <김영철전>(金英哲傳)은 1762년 무렵에 박증대(朴增大)라는 인물이 필사한 텍스트이다. 이 텍스트는 현전하는 긴 편폭의 <김영철전> 이본들 가운데 ‘김영철 서사’의 효시인 <김영철유사>(金英哲遺事)에 가장 근접해 있다. 본고에서는 조원경본을 중심으로 <김영철전>의 창작 방법을 원리적 차원에서 고찰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주요하게 활용되었음을 밝혔다. 첫째는 사실(史實)을 활용한 역사의 전경화(前景化)이다. 둘째는 허구(虛構) 창조에 의한 부연(敷衍)이다. 이 두 가지 창작 방법을 통해, 조원경본은 김영철이라는 실존 인물의 파란만장한 삶을 사실에 기초하되 허구를 보태어 감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으며, 김영철의 삶을 매개로 17세기 동아시아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었다.

조원경본의 창작 방법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동아시아의 전통적 글쓰기 방법인 ‘연의적(演義的) 원리(原理)’를 주요하게 활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흥세태본으로 대표되는 ‘전계소설(傳係小說) <김영철전>’과 구별하여, 조원경본 등 보다 긴 편폭의 <김영철전>을 ‘연의소설(演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義小說) <김영철전>'으로 새로 명명하였다.

핵심어: <김영철전>, 조원경본, 연의소설, 창작 방법, <김영철유사>

1. 머리말

1600년, 조선의 평안도 영유현(永柔縣)에서 태어난 김영철(金英哲)이라는 평범한 남자가 격변기 동아시아의 전란에 휘말리어 파란만장하게 산 80여 평생을 담은 '김영철 서사'는 오늘날 읽어도 흥미롭고 의미심장하다.

'김영철 서사'가 우리 학계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90년, 박희병에 의해서다. 박희병은 홍세태(洪世泰, 1653~1725)의 『유하집』(柳下集)에 실려 있는 <김영철전>(金英哲傳, 이하 홍세태본)을 찾아내, 그 서사적 성취와 조선 후기 소설사에서의 의의를 규명했다.¹⁾ 홍세태는 <김영철유사>(金英哲遺事)라는 글을 읽고 그것을 토대로 작품을 지었다.²⁾ 다만 지금까지 '김영철 서사'의 효시인 <김영철유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기는 하나 그 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새 자료가 꾸준히 발굴되어 '김영철 서사'의 범주는 점점 확장되었다. 먼저 권혁래가 국문본 <김털전>(이하 나손본)을 조사해 소개했다. 나손본은 전반부가 일실된 낙장본임에도 홍세태본보다 두 배가 넘는 분량이어서 주목받았다.³⁾ 그 후 박재연·양승민이 긴 편폭으로 찍어진 새로운 한문본 <김영철전>(金英哲傳, 이하 박재연본)을 발굴하여 연구사에 중요한 일획을 그었다.⁴⁾ 다음으로 서인석이 국문본 <김영털전>(이하 서인석본)을 소개했다. 서인석본 또한 긴 편폭으로 되어 있으며, 나손본의 일실된 전반부 서사가 실려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⁵⁾ 최근에는

1) 박희병, 「17세기 동아시아의 戰亂과 民衆의 삶 - <金英哲傳>의 분석」, 『韓國 近代文學史의 爭點』, 창작과비평사, 1990. 이 논문은 최근 '보론'을 덧붙여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알렘, 2019)에 수록되었다.

2) 위의 논문, 46면에서 “<김영철전>은 <김영철유사>를 바탕으로 창작된 것”임을 처음 말했다.

3) 권혁래, 「나손본 『김털전』의 史實性和 여성적 시각의 면모」, 『고전문학연구』 제15권, 한국고전문학회, 1999.

4) 양승민·박재연, 「원작 계열 <金英哲傳>의 발견과 그 자료적 가치」, 『고소설연구』 제1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4. 다만 박재연본은 국문본을 재한역(再漢譯)한 텍스트로 추정된다.

송하준이 조원경 목사가 소장하고 있는 또다른 한문본 <김영철전>(金英哲傳, 이하 조원경본)을 소개했는데, 이 또한 긴 편폭으로 되어 있다.⁶⁾

필자는 흥세태본의 장르가 전계소설(傳係小說)에 해당된다고 보는 입장이다.⁷⁾ 이러한 관점을 취할 때, 앞에서 거론한 현전하는 소설 <김영철전>은 크게 두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편폭이 짧은 전계소설인 흥세태본이 그 한 계열을 이루고, 편폭이 긴 나손본·박재연본·서인석본·조원경본이 다른 한 계열을 이룬다.⁸⁾ 그렇다면 후자의 텍스트들을 전계소설 <김영철전>과 구별해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

주지하듯 ‘연의(演義)’라는 말의 원의(原義)는 ‘뜻을 부연(敷衍)하여 말하다’이다. 이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거기에 허구를 보태어 서사를 확장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글쓰기 방법을 ‘연의’라 이르고, 그러한 방법에 의해 창작된 소설 장르를 ‘연의소설’이라고 일컫는다.⁹⁾ 현전하는 긴 편폭의 <김영철전> 텍스트들은 바로 그러한 ‘연의적 원리’에 의해 창작되었으므로,¹⁰⁾ ‘전계소설 <김영철전>’과 구별해 앞으로 ‘연의소설 <김영철전>’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연의소설 <김영철전>은 언제 처음 창작되었을까? 이 물음과 관

5) 서인석, 『국문본 <김영철전>의 이본적 위상과 특징』, 『국어국문학』 제157호, 국어국문학회, 2011.

6) 송하준, 『새로 발견된 한문필사본 <김영철전>의 자료적 가치』, 『고소설연구』 제35집, 한국고소설학회, 2013; 송하준, 『조선 후기 역사소설과 민족 정체성의 재구성』, 학자원, 2015, 69~96면.

7) 필자는 특정 소설 작품의 장르 귀속이 오로지 작자의 창작 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텍스트 자체의 속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설 때, 흥세태본은 그 서사의 원천인 <김영철유사>에 내재된 ‘소설적 성향’의 영향으로 인해 ‘전계소설(傳係小說)’ 장르에 귀속된다고 판단된다. 박희병, 앞의 책, 560~562면 참조. 이 문제는 본고의 제3장에서 좀더 논의된다.

8) 두 계열 소설의 편폭 차이를 보이기 위해 글자 수를 제시하면 흥세태본은 3,400여 자(字)이고, 조원경본은 13,900여 자(字)이다.

9) 20세기 초반에 중국의 노신(魯迅)은 『小說史大略』이라는 책에서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와 <수호전>(水滸傳) 등이 소설 장르 중 ‘역사연의(歷史演義)’에 해당된다고 분류했는데, 그 뒤에 출간한 『中國小說史略』에서는 이를 ‘강사(講史)’로 고쳐 불렀다. 陳平原, 이보경·박자영 역, 『중국소설사: 이론과 실천』, 이룸, 2004, 293면 참조. 그런데 한국 고전소설 중에는 ‘○○演義’라는 제목을 붙인 작품이 많아 ‘강사’보다 ‘연의’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한편 19세기 한문소설 <삼한의열녀전>(三韓義烈女傳)을 대상으로 그 창작 방법이 ‘연의적 원리’에 의거하고 있음을 규명한 최근 연구로 김유진, 『<三韓義烈女傳>의 창작방법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가 있다.

10) 그 구체적인 근거는 본고의 제3장에서 밝힌다.

런해 18세기에 이동완(李棟完, 1651~1725)이라는 문인이 쓴 <김영철전후지>(金英哲傳後識)가 참조된다.

무명씨(無名氏)가 이르기를, “내가 후자가 지은 <김영철전>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필세가 섬려(纖麗)하여 읽을 만했지만 자못 번잡하고 비루하여 내가 마침내 산개(刪改)하고 윤색(潤色)했다”라고 했다. (… 금상(今上: 肅宗 - 인용자) 10년 계해년(癸亥年)에 김영철이 죽었는데 향년 85세이며, 평안도 순안현(順安縣)에 그 무덤이 있다고 한다.¹¹⁾

‘금상(今上)’이라는 말이 보이므로, 이 글은 숙종(肅宗)이 승하한 1720년 6월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후자’가 지은 <김영철전>과, ‘무명씨’가 산개하고 윤색한 <김영철전> 모두 1720년 6월 이전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¹²⁾ 그런데 인용문 중 진하게 표시한 “필세가 섬려(纖麗)하여 읽을 만했지만 자못 번잡하고 비루하여”라는 말을 보건대, ‘후자’가 지은 <김영철전>을 연의소설 계열의 <김영철전>으로 추정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무명씨’가 읽은 연의소설 <김영철전>이 연의소설 계열의 최초 작품인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늦어도 1720년 6월 이전에 연의소설 <김영철전>이 창작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홍세태본은 1717년경에 창작되었다.¹³⁾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전계소설 <김영철전>과 연의소설 <김영철전> 중 어느 계열의 소설이 먼저 창작되었는지 단언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설 <김영철전>¹⁴⁾ 텍스트의 전체 지형도 안에서, 최근에 소개된 조원경본은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연의소설 텍스트로서 각별한 주목을 요한다. 송하준의 고증에 따르면, 조원경본은 1762년 무렵에 박증대

11) “無名氏曰: ‘余觀或人所爲<金英哲傳>者, 筆勢纖麗可玩, 而頗傷冗雜, 暇夜, 余遂刪改潤色焉.’ (… 今上十年癸亥, 金英哲卒, 年八十有五, 平安之順安縣有其塚云.” 李棟完, <金英哲傳後識>, 『茅山集』 권3, 한국역대문집총서 579, 경인문화사.

12) 이승수, 『<김영철전>의 갈래와 독법: 홍세태의 작품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107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298면; 송하준, 앞의 논문, 250~252면; 박희병, ‘보론’, 앞의 책, 573~576면에서도 이동완의 이 글을 주목해 고찰했다.

13) 이승수, 위의 논문, 295면.

14) 본고에서 ‘소설 <김영철전>’이라고 할 때는 ‘전계소설 <김영철전>’과 ‘연의소설 <김영철전>’을 총칭한다.

(朴增大)라는 인물이 필사한 것이다.¹⁵⁾ 따라서 조원경본은 현전하는 연의소설 계열 이본 가운데 ‘김영철 서사’의 효시인 <김영철유사>에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다. 게다가 연의소설 계열의 나손본·박재연본·서인석본이 모두 19세기 자료로 추정되는바,¹⁶⁾ 18세기에 필사된 조원경본은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초기적 양상을 현재 가장 잘 보여주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¹⁷⁾

송하준의 연구는 조원경본을 학계에 처음 소개하고, 여타 이본과 서사의 경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고찰함으로써 문헌학적 측면에서 자료적 가치를 규명한 의의가 있다. 그렇기는 하나 조원경본에 대한 본격적인 문예적 고찰은 이제 새로 시작되어야 할 단계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연의소설 <김영철전>과 <김영철유사>의 관계에 대해 예비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현전 연의소설 계열 <김영철전> 가운데 가장 초기의 텍스트인 조원경본을 중심으로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창작 방법을 원리적 차원에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¹⁸⁾ 이하 논의 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홍세태본 및 연의소설 계열 <김영철전>의 여러 이본들을 두루 참조하며 조원경본과 비교하고자 한다.¹⁹⁾

II. 연의소설 <김영철전>과 <김영철유사>의 관계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근저에는 실존 인물 김영철의 ‘구술(口述)’이 자리하고 있다. 언뜻 자명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점이 사실로 확인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김영철유사>의 존재는 홍세태가 쓴 <독

15) 송하준, 앞의 논문, 247면. 조원경본은 경상도 의성(義城)의 신덕합(申德涵, 1656~1730) 후손가에 전해온 전적(典籍) 속에 들어 있던 것이다. 박희병, 앞의 책, 568면.

16) 권혁래, 앞의 논문, 142면; 권혁래, 『<김영철전>의 작가와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제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107면; 서인석, 앞의 논문, 121면.

17) 다만 <김영철전후지>(金英哲傳後識)에서 이동원이 말한 ‘혹자’가 지었다는 <김영철전>이나 ‘무명씨’가 산개했다는 <김영철전>이 조원경본과 어떤 관계인지는 현재 정확히 알기 어렵다.

18) 필자는 2019년 4월에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을 방문하여 조원경본을 열람했다. 귀중한 자료의 열람을 허락해 주신 조원경 목사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19) 필자는 서인석 교수가 소장한 서인석본, 박재연 교수가 소장하고 양승민 교수가 표점·교감한 박재연본을 연구 자료로 이용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분들께 감사드린다.

김영철유사>(讀金英哲遺事)²⁰⁾라는 시 제목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이 시 외에 “金英哲遺事”라는 기록이 보이는 자료가 없어, <김영철유사>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텍스트인지 정확히 고구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박재연본이 발견되어, 그 에필로그를 통해 김영철과 같은 평안도 영유현(永柔縣) 출신인 ‘김응원(金應元)’이라는 사람이 만년의 김영철을 직접 만나 그 평생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드러났다. 이를 근거로 권혁래는 김응원이 ‘김영철 서사’를 최초로 기록한 작자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했다.²¹⁾

권혁래의 이 가설은 송하준의 연구를 통해 사실로 입증되었다.²²⁾ 다음과 같이 조원경본의 에필로그에는 <김영철유사>의 성립 경위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언술이 보인다.

김응원이라는 이 역시 영유현(永柔縣)에 집이 있었는데 영철과 같은 고을이었다. 영철이 자모성(慈母城)으로 이거(移居)한 후에, 응원이 마침 그 지역을 지나게 되어 방문했다. 영철은 닭을 잡고 술을 사왔으며, 세 아들을 나오라 해 보였다.

응원이 평생 겪은 여러 곳에서의 비희고락(悲喜苦樂)의 일을 자세히 물어보자 영철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난 일을 이야기하자면 비감만 더할 뿐입니다만, 어르신(長者)께서 물어보시니 감히 다 진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그 시종(始終)을 매우 자세히 이야기했는데, 연로하고 정신이 흐려져 열의 여덟아홉은 빠뜨렸다고 말했다.²³⁾

20) 洪世泰, <讀金英哲遺事>, 『柳下集』 권13, 한국문집총간 167, 한국고전번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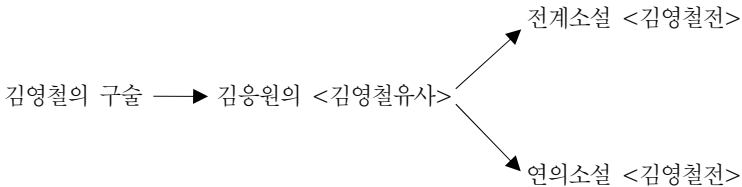
21) 권혁래, 『<김영철전>의 작자와 작가의식』, 100면.

22) 송하준, 앞의 논문, 248~249면. 다만 송하준은 김응원이 소설 <김영철전>의 작자라고 했는데, 필자는 김응원을 <김영철유사>의 작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앞에서 검토한 이동완(李棟完)의 <김영철전후지>(金英哲傳後識)에 보이는 ‘무명씨’의 산개(刪改) 및 윤색(潤色)의 기록, 둘째, 조원경본의 말미에 보이는 “응원이 기록한 것은 이와 같다. 그 문사(文辭)가 분잡하고 잘못된 게 많아 정제(整齊)하였다”(應元所記如此 顧其辭多糸[紛]縷, 畧加齊整云爾)라는 기록으로 보건대, 김응원의 <김영철유사>는 어떤 작가에 의해 연의소설 <김영철전>으로 재탄생해 <김영철유사>보다 더 널리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23) “有金應元者, 亦家永柔, 與英哲同鄉里. 後英哲移居慈母, 應元適過其地訪焉. 英哲殺鷄沽酒, 出示三子. 應元細叩平生所經諸處悲喜苦樂之事, 英哲嚮蹙曰: “欲談往事, 則但增傷感, 長者有問, 敢不悉陳?” 於是道其終始甚詳, 猶言年老神昏, 十遺八九也.” 조원경본. 이하 조원경본 원문의 표점 및 번역은 필자가 한 것이다.

인용문에서 보듯, 김응원은 자모성(慈母城)으로 이주한 김영철의 집을 방문해 그의 비범한 인생 역정에 대해 물어보았다. 김영철은 지난 일을 이야기하자면 비감만 더할 뿐이라면서도 김응원에게 “그 시종(始終)을 매우 자세히 이야기했”다. 인용문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최초의 ‘김영철 서사’가 김영철의 구술에서 연원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아울러 이 최초의 ‘김영철 서사’가 상당히 긴 편폭이었으리라는 추정도 가능케 한다.²⁴⁾

필자는 이처럼 김영철의 구술을 직접 들은 김응원이 그 이야기를 기록물로 전환하여 만든 최초의 저술이 바로 <김영철유사>라고 추정한다. 나아가 이 <김영철유사>가 연의소설 <김영철전> 서사의 가장 근저에 놓여 있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흥세태가 <김영철유사>를 직접 읽고 쓴 전계소설 <김영철전>의 주요 사건이, 조원경본을 비롯한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여러 이본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고찰 결과를 간략히 정리해보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관계도에서 보듯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서사는 <김영철유사>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연의소설 <김영철전>이 <김영철유사>와 같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 말하고자 한다. 그 주요한 차이는 이어지는 본고의 제3장에서 논의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증이 불필요한 실증적 근거 몇 가지만 먼저 제시한다. 첫째, 흥세태가 <김영철유사>를 직접 읽고 쓴 흥세태본에는 김영철이 1600년 생으로 되어 있으나, 연의소설 <김영철전>인 조원경본에는 김영철이 1599년 생으로 되어 있다. 둘째, 흥세태본에는 김영철의 향년이 84세로 되어 있으나, 조원경본에는 85세로 되어 있다. 셋째, 흥세태본에는 김영철이 조선에 돌아와

24) 다만 김영철이 “연로하고 정신이 흐려져 열의 여덟아홉은 빠뜨렸다고 말했다”는 대목은, 한 자리에서 평생의 일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자연스레 덧붙인 말로 보인다. 이 구절을 근거로 당시 김영철의 이야기가 소략했을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의상(宜尙), 득상(得尙), 득발(得發), 기발(起發)이라는 네 아들을 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원경본에는 득상(得祥), 득발(得發), 기발(起發)이라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둔 것으로 되어 있다. 흥세대가 <김영철전>을 쓰면서 <김영철유사>에 서술되어 있는 김영철의 생몰년이나 그 자식들에 대한 사실들을 임의로 고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조원경본의 모본(母本)이 된 연의소설 <김영철전>이 <김영철유사>와 별도로 존재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김응원은 왜 제목을 ‘유사’라고 했을까? 대개 ‘유사’를 쓰거나 편찬하는 일은, 추모 대상 인물의 생애 전반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가능한 한 풍부하게 그 삶의 조각들을 모아 종합하려는 지향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유사는 실존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포퓰’이라는 뚜렷한 목적 하에 비교적 짧은 편폭으로 정제되어 씌어지는 인물전(人物傳)에 비해 대체로 더 포괄적이고 상세하다.

유사의 이러한 특징과 관련해, 18세기에 이시항(李時恒, 1672~1736)이 김정서(金景瑞, 1564~1624) 장군을 기리어 편찬한 <김장군유사>(金將軍遺事)가 참조된다. 그 체재를 보면 ‘세계(世系)-연보(年譜)-유문(遺文)-천조차계(天朝筭啓)-본국장문(本國狀聞)-사적차록(事跡筭錄)-본도유생 강문의 등 신원소(本道儒生康文翼等伸冤疏)-조방장 김득진 진정사직소(助防將金得振陳情辭職疏)-관서충렬전(關西忠烈傳)-발(跋)’의 순으로 되어 있다.²⁵⁾ <김장군유사>의 체재에서 보듯, 인물 유사에는 가능한 한 풍부하게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대상 인물의 삶을 상세히 전하고자 하는 지향이 보인다. 이러한 체재는 대상 인물이 역사적으로 억울하게 되거나 인멸되지 않기를 바라는 작자의 의도와 관련이 깊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유사 저술의 공통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김장군유사>가 차계, 장문, 신원소와 같은 당대의 여러 기록 문서를 포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김영철유사>는 주로 김영철의 구술에 기초해 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김영철은 하층민이었으므로 유사에 넣을 만한 공적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하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의 17세기 역사서 어디에도 김영철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²⁶⁾

25) 이송희, 『<金將軍遺事> 연구 - 김응하 『충렬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68집, 열상고전연구회, 2019, 18면 참조.

26) 정조대(正祖代)에 편찬된 『國朝人物考』에는 ‘김영철’ 항목이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은 ‘김영철 서사의 성립 및 전파로 인해 김영철이 인구에 회자된 뒤에 기술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그런데 조원경본에는, 홍세태본에는 없는 김영철의 집안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보여 유의해 읽어볼 필요가 있다.

김영철은 영유현 사람이다. 증조부 옥한(玉漢)은 무과(武科)에 올랐다. 조부 영가(永可)에게는 영화(永和)라는 동생이 있으니 역시 무과에 급제했다. 영가에게는 여관(汝灌)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고, 여관에게는 영철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어려서부터 말 타고 활쏘기를 좋아하여 그 이름이 현(縣)의 무학생(武學生)²⁷⁾에 속했으며, 스무 살로 아직 장가들지 않았다.²⁸⁾

인용문에서 보듯, 조원경본에는 김영철의 증조부 김옥한(金玉漢)과 숙조부 김영화(金永和)가 무과(武科) 급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김영철이 1600년생이므로, 증조부와 숙조부의 무과 급제 시기는 대략 16세기 후반 이후일 것이다.²⁹⁾ 그런데 조선시대 무과 급제자의 신분은 임진왜란 발발을 전후로 크게 달라졌다. 선조(宣祖)는 전쟁으로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전투에 바로 투입할 군사를 시급히 확보하기 위한 방책으로 무과를 빈번히 실시했다. 이러한 무과의 대대적 확대 과정에서 임진왜란 이전과 달리 서얼과 양민은 물론 천민 신분에서도 무과 급제자가 다수 배출되었다.³⁰⁾

주목되는 사실은 선조의 피난지였던 평안도에서 임진왜란 7년 동안 배출된 무과 급제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특히 임진왜란 직후 영유현에서 연이어 개최된 1592년(선조 25) 별시무과(別試武科) 및 1593년(선조 26) 별시무과에서는 급제자가 수백 명씩 대거 배출되었다.³¹⁾ 이에 장원(壯元)을

선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7) ‘무학생(武學生)’은 ‘무학생도(武學生徒)’와 같은 말로, 지방의 무학(武學) 교육기관인 무학당(武學堂), 무학청(武學廳) 등에서 ‘직역(職役)으로서 무학(武學)을 익히는 학생’을 뜻한다. 박종배, 『조선시대 무학 별설론(別設論)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36권 4호, 한국교육사학회, 2014, 52~53면 참조.
- 28) “金英哲, 永柔縣人也. 曾祖玉漢, 登武科. 祖永可, 有弟曰永和, 亦中武科. 永可有一子曰汝灌, 汝灌有一子即英哲. 自少好馳馬彎弓, 名屬縣武學生, 年二十未娶.” 조원경본.
- 29) 다만 현전하는 무과방목(武科榜目)에서 두 사람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무과방목은 실전(失傳)된 것이 많다.
- 30) 심승구, 『壬辰倭亂 중 武科의 運營 實態와 機能』, 『朝鮮時代史學報』 제1집, 조선시대사학회, 1997, 104~107면 참조.
- 31) 1592년(선조 25)에 영유현에서 개최된 별시무과의 급제자는 각종 문헌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인원은 미상이나, 최소 168명, 최대 700명이다. 위의 논문, 73면 참조. 1593년(선

제의하고는 대개 관직 없이 출신(出身)만을 부여했고, 심지어 구두로 임명하여 출사(出仕)한 날을 계산해 거관(去官)하게 했으며, 부방(赴防) 의무시 각자 식량을 준비하도록 하기도 했다.³²⁾ 그러므로 김영철의 증조부와 숙조부가 무과에 급제한 일은, 이와 같은 당시 평안도 영유현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작중에 드러난 여러 사실들은 김영철의 신분이 양민(良民)이었음을 말해준다.³³⁾ 여기에 더해, 앞의 인용문에서 검토한 김응원과 김영철의 대화를 결정적 근거로 삼을 만하다. 김응원은 평안도에 세거해 온 한미한 사족(士族) 출신이다.³⁴⁾ 그런데 연장자인 김영철이 자신보다 나이가 스물 몇 살이나 적은 김응원에게 “어르신[長者]께서 물어보시니 감히 다 진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³⁵⁾ 라고 존대하며 답하는 장면이 보인다. 이 장면에서 김영철이 김응원보다 신분상 낮은 양민 계층의 인물임이 잘 드러난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볼 때,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서사는 기본적으로 <김영철유사>에서 연원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영철유사>는 김영철이 구술한 이야기를 김응원이 직접 듣고 쓴 것이다. <김영철유사>가 상층 인물의 유사와 달리 기본적으로 구술에 기초해 씌어진 것은, 하층의 양민이었던 김영철의 신분과 관련이 깊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작자 김응원이 <김영철유사>를 저술하면서 기본적으로 김영철이 구술한 경험적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되, 거기에 얼마간 허구를 보탤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술되는

조 26) 영유현에서 개척된 별시무과의 급제자는 353명이다. 『宣祖實錄』 1593년(선조 26) 4월 17일(辛丑) 기사 참조.

32) 심승구, 앞의 논문, 109~110면 참조.

33) 사행선(使行船) 도선주(都船主)인 이연생(李連生)과의 친구 관계, 김영철과 숙조부의 심하 전투 차출, 김영철 부친의 안주성(安州城) 전투 차출 및 전사(戰死), 가계 형편, 김영철의 만년 행적 등은 모두 김영철의 신분이 하층의 양민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에 해당된다.

34) 김응원의 본관은 풍천(豊川)이다. 풍천 김씨는 평안도에 세거해 왔으며, 김응원은 그 11세(世)에 속한다. 김현범 편, 『新羅金氏二千年史』, 寶蓮閣, 1982, 831~832면 참조. 『肅宗實錄』 1685년(숙종 11) 11월 12일(戊辰), ‘영유(永柔) 유생(儒生) 김응원(金應元)이 본현(本縣)의 승호(乘號)를 상소하자 윤희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응원의 신분이 확인된다. 한편 김영철의 본관을 ‘풍천’ 또는 ‘영유’로 밝히고 있는 근대 문헌이 보이지만, 그대로 준신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만일 김응원과 김영철이 친척간이었다면, 전통 시기의 글쓰기 관례에 비추어 예필로그 부분에 그 가족관계 및 촌수 등이 밝혀져 있었을 터인데, 현존하는 어떤 이본에도 그런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김응원과 김영철은 친척간이 아니며, 김영철은 풍천 김씨가 아니라고 추정된다.

35) “(...) 長者有問, 敢不悉陳?” 조원경본.

제3장의 제2절에서 이어가고자 한다.

III.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창작 방법

1. 사실(史實)을 활용한 역사의 전경화(前景化)

연의소설 <김영철전>은 김영철의 삶을 매개로 17세기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펼쳐 보인다. 1619년의 심하(深河) 전투, 1630년 진하사(進賀使)의 북경 사행, 1637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심양행(瀋陽行), 조선 군대의 1640년 개주(蓋州) 파병, 1641년 금주(錦州) 파병 등의 역사적 사건들이 작중에 ‘전경화(前景化)’되어 있다. 이에 독자는 김영철 개인의 인생사를 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명·청 교체기의 역사를 추체험하게 된다. 이처럼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작자는 개인적 삶의 계기적 전개가 거시사(巨視史) 속에서 조망되도록 했다. 즉 미시사(微視史)와 거시사(巨視史)의 결합이다.

필자가 새로 발견한 사실은, 특히 연의소설 <김영철전>이 그 창작 단계에서 ‘사실(史實)’을 활용함으로써 당대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전경화했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김영철유사>, 전계소설 <김영철전>,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관계가 뚜렷이 정립되지 않은 까닭에, 그 차이가 예리하게 짚어지지 않았다. 논증을 위해 심하 전투 부분의 서술을 비교 고찰해 보자. 다음은 홍세태본의 해당 대목이다.

기미년(己未年, 1619) 봄 2월, 홍립이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너 영마전(景馬田)에서 명나라 군대와 합류했고, 우모령(牛毛嶺)을 넘어 10여 개의 보루를 격파하고 승세를 타 전진했다. 명나라 군대가 앞서고, 우리 군대의 좌영(左營)이 그 다음, 중영(中營)이 또 그 다음에 섰으며, 우영(右營)이 후군이 되었다.

누르하치는 정예병 수만 명을 모조리 동원해 아들 귀영가(貴永可: 다이산-인용자)에게 주어 명나라 군대를 격파하게 했으며, 마침내 우리 좌영을 치고 들어와 교전했다.³⁶⁾

36) “己未春二月，弘立率兵渡江，與天兵會于景馬田，進踰牛毛嶺，擊破十餘堡，乘勝而進。天兵前，我左營次之，中營又次之，右營殿。虜悉精銳數萬，遣其子貴永可，擊敗天兵，遂薄我左營戰。” 홍

잘 알려져 있듯 1619년 3월의 심하 전투는, 동아시아 패권 교체의 분기점이 된 전투이다. 이 전투 이후에 명의 세력은 급격히 쇠퇴하고, 후금(後金)은 더욱 막강해졌다. 인용문은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전의 긴장된 전황(戰況)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리 구체적이지는 않다. 시간적 배경이 1619년 2월경이라는 대략적인 서술만 보이고, 실제로 심하 전투가 3월 4일에 발발했다는 정확한 사실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각국 장수에 대한 정보도 소략한 편으로, 조선의 주장(主將)이 강홍립이고, 후금의 장수가 누르하치의 아들 ‘귀영가(貴永可)’라는 언급만 보일 뿐 명나라 장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앞서 언급했듯 홍세태본은, 홍세태가 김영철의 구술에 기초한 <김영철유사>를 직접 읽고 쓴 작품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인용문에 서술된 정보의 수준은 말단 군졸이었던 김영철이 구술한 내용으로 보더라도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에 비해 조원경본의 해당 부분을 보면, 그 양상이 자못 다르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25일, 양 군대(조선군과 명군 - 인용자)가 영마전(景馬田)에 집결했다. 도원수와 부원수가, 양경략(楊經略)·유제독(劉提督)·교유격(喬遊擊)을 만나 군사를 나누어 양쪽에서 적을 공격할 것을 의논했다. 그때 좌영장인 선천군수(宣川郡守) 김응하(金應河)가 오친 명의 병사를 이끌고 전봉(前鋒)이 되었는데, 영유의 병사는 좌영(左營)에 속했으므로 영화와 영철 모두 예하 부대원이 되었다.

3월 2일, 군대가 우모령(牛毛嶺)에 도착했다.

4일, 날이 밝자 명나라 군대가 출행했는데, 또한 군사를 양 방면으로 나누어 출행했다.

누르하치가 정예병 수만 명을 모조리 동원해 장자인 귀영가(貴盈哥: 다이산-인용자)에게 주어, 먼저 양경략과 유제독의 군대를 다 섬멸하고 이어서 우리 군대를 공격하게 했다.³⁷⁾

세태, <金英哲傳>, 『柳下集』 권9, 韓國文集叢刊 167,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은 홍세태, <김영철전>(金英哲傳), 박희병·정길수 역,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돌베개, 2007)를 참조하되, 필자가 부분적으로 수정했다.

37) “二十五日, 兩軍會于景馬田, 都元副帥見楊經略, 劉提督, 喬遊擊, 議犄角進功[攻]. 時左營將宣川郡守金應河, 以所領兵五千爲前鋒, 永柔兵屬左營, 故永和英哲俱隸焉. 三月二日, 兵至牛毛嶺. 四日, 平明, 天兵啓行, 亦以犄角行. 奴酋悉精兵數萬, 遣長子貴盈哥, 先破楊, 劉兵盡殲, 而繼攻我軍.” 조원경본.

인용문에서 보듯, 조원경본은 흥세태본에 비해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조원경본에 보이는 정보의 수준이 김영철이 구술 가능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는 어디에서 얻은 것일까? 『책중일록』(柵中日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책중일록』은 강홍립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있던 이민환(李民寬, 1573~1649)이 1618년 4월 종군하면서부터 1620년 7월 조선에 귀환하기까지의 경과를 기록한 일록(日錄)이다. 『책중일록』은 현전하는 조선시대 문헌 가운데 심하 전투에 대한 가장 상세한 저술로 평가된다.

그런데 필자가 판단하기에 『책중일록』의 기록을 작품에 적절히 원용하는 작법은 <김영철유사> 및 흥세태본에서는 구사되지 않았으며, 연의소설 <김영철전>에 이르러서 구사된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원경본에 심하 전투의 시간적 배경이 1619년 2월 25일, 3월 2일, 3월 4일이라는 구체적 날짜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원경본 전체에서 오직 심하 전투 서술 부분에만 이렇게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일록체(日錄體)’로 씌어진 『책중일록』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³⁸⁾ 둘째, 조원경본의 심하 전투 서술 부분에 보이는 조선·명·후금의 장수 이름이 『책중일록』의 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조원경본에는 명의 장수인 양경략(楊經略)·유제독(劉提督)·교유격(喬遊擊)의 이름과 직책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러한 고급 정보는 기록된 문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누르하치의 아들로 서 후금의 주장(主將)이었던 다이산의 한자 이름 표기가 조원경본에만 “貴盈哥”로 되어 있는데, 이는 『책중일록』의 표기와 일치한다.³⁹⁾ 셋째, 『책중일록』이 수록되어 있는 이민환의 문집 『자암집』(紫巖集)이 1741년에 초간(初刊)되었다는 점이다.⁴⁰⁾ 앞에서 언급했듯, 흥세태본은 1717년 무렵에 씌어졌다. 따라

38) 다만 유의할 점은, 조원경본의 날짜 기술 내용이 『책중일록』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 예로, 조원경본에는 “3월 2일, 군대가 우모령(牛毛嶺)에 도착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책중일록』을 보면 조선 군대가 우모령에 도착한 날짜는 2월 28일이다. 이러한 차이는,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원작이 창작된 후 그것이 유포되거나 개작되는 단계에서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39) 당시 명나라에서 다이산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할 때 주로 ‘貴永介’라고 했고, 조선에서는 ‘貴永哥’라고 했다. 그러므로 조원경본과 『책중일록』의 이름 표기 일치하는 주목되는 점이다. 한편 앞에서 보았듯 흥세태본에는 “貴永可”로 되어 있다. 이민환, 중세사료강독회 역, 『책중일록』, 서해문집, 2014, 59면 참조.

40) 『자암집』(紫巖集) 초간본은 이민환의 증손인 이수태(李秀泰)가 정리하고, 이광정(李光庭)이

서 흥세태가 『책중일록』을 직접 볼 기회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군 포로 수백 명의 참수(斬首) 사건⁴¹⁾이 흥세태본과 『책중일록』⁴²⁾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하나, 그 사건은 실제 일어났던 참혹한 사건으로, 그때 김영철의 숙조부가 목숨을 잃고 김영철 또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다. 따라서 그 사건은 꼭 『책중일록』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김영철의 구술로써 얼마든지 전해질 만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책중일록』은 <김영철유사> 및 흥세태본에는 수용되지 않았으며, 연의소설 <김영철전>에서 비로소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로서는 그 시점을 단언할 수 없지만, 늦어도 조원경본이 필사되기 전이므로 1762년 이전에 그 수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사실(史實)을 활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당대 역사를 전경화하는 방법이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주요 창작 방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방법은 역사적 사건을 다룬 여타 서술 부분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다른 예로 병자호란 직후의 역사적 사건이 전경화된 부분을 보자. 비교를 위해, 먼저 흥세태본의 해당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병자년(丙子年, 1636) 겨울, 오랑캐가 조선에 쳐들어왔다가 철수하면서 공유덕(孔有德) 등을 남겨 수군(水軍)을 이끌고 가도(假島)를 공격하게 하고자 영유현에 주둔케 했다.

영유 현령은 영철을 오랑캐 군영에 보내 인사말을 전하게 했다. 오랑캐 장수 하나가 영철을 보고는 붙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자는 우리 숙부 댁의 종이다. 말을 훔쳐 달아나서 우리 숙부가 늘 분하게 여겼다. 이제 내가 이 종을 잡아가야겠다.”⁴³⁾

김영철은 중국 건주(建州)와 등주(登州)에서 지내는 동안 만주어(滿洲語)

교정하여 1741년에 경상도 의성(義城)의 다정재사(茶井齋舍)에서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박경선, 『역주 『책중일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6면 참조.

41) 조선의 한 병사가 전투 중에 벤 후금 군사의 수급(首級)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포로가 된 후 그것이 발각되었다. 이에 조선군 포로 수백 명이 참수(斬首)되었다. 이 사건으로 영철의 숙조부가 죽임을 당하고, 영철도 죽을 뻔했으나 아라나의 청(請)으로 살아남았다.

42) 『책중일록』 1619년 3월 23일자에 비슷한 사건 기록이 보인다.

43) “丙子冬, 虜東掄, 及是撤還, 留孔有德等, 帥舟師, 將攻假島, 屯永柔. 縣令使英哲詣虜營致辭. 有一虜將, 見英哲, 執之曰: “此吾叔家奴也. 竊馬亡去, 吾叔常憤甚. 我今以此奴去.” 흥세태본.

와 한어(漢語)를 모두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고향에 돌아와서 군대의 통역 일에 동원되었다가 체제를 알아본 아라나의 조카에게 결박되어 위기에 처한다. 김영철이 겪은 이 일은, 병자호란 직후인 1636년(인조 18) 겨울 이후, 청군이 영유현에 주둔하고 있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 그렇기는 하나 인용문의 진하게 표시한 부분에서 보듯 그 서술이 개략적인 편이다.

그에 비해 다음에서 보듯 조원경본의 해당 부분은 그 양상이 상당히 다르다.

① 이 해(1636) 겨울, 청나라 군대가 갑자기 들이닥쳐 남한산성이 포위되었다. 정축년(丁丑年, 1637) 3월, 강화(講和)가 성립되어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가면서 한 고산(固山)⁴⁴⁾을 남기고 공유덕(孔有德), 경중명(耿仲明)의 군대로 함선(艦船)을 모아 장차 피도(皮島)를 공격하려 했다. 영유현령 이회(李晦)가 선박 제작을 감독하고, 읍령은 영철이 세 나라 말에 능통하므로 불러서 행중(行中: 행중역관(行中譯官)을 이름-인용자의 임무를 맡겼다.

② 그때 세자(世子)와 대군(大君)은 영유의 덕지(德池)에 체류하며 토인(土人) 강희경(姜熙卿) 등의 장사(莊舍)에 머물렀다. 반장(叛將) 한운(韓潤)이 군대를 이끌고 문화(文化)에 체류하며 세자를 따라갔다. 고산이 대병을 이끌고 영유에 머문 지 또한 반 달이 되니, 한운이 강진(江津)을 건너 서쪽으로 갔고, 그 후 고산 또한 떠났다.

③ 읍령이 세자와 대군을 알현하고 생선과 채소를 가지고 영철로 하여금 고산의 군문(軍門)에 나아가게 했다. 갑자기 한 오랑캐가 영철을 보고 결박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너는 우리 숙부 아라나 댁에 있으면서 종으로 6,7년간 일했다. 우리 숙부가 너를 매우 후히 대해 주어 형수의 여동생과 결혼시켜 주었으며 이미 자식 둘을 낳았다. (...) 이제 내가 너를 붙잡아서 돌아가면 우리 숙부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⁴⁵⁾

44) ‘고산(固山)’은 만주어이다. ‘팔고산(八固山)’은 만주족이 국가를 형성한 초기에 여덟 명의 버 일러(八王)가 군사·정치·경제를 공동으로 통치하는 사회조직이자 정치조직을 이르는 말로, ‘만주팔기(滿洲八旗)’라고도 한다. 劉小萌, 이훈·이선에·김선민 역,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2013, 32~33면 참조.

45) “是冬清兵卒至, 南漢被圍. 丁丑三月和成, 兵解而歸, 留一孤[固山], 以孔有德耿仲明之兵, 聚船將攻皮島, 永柔縣令李晦, 督治舟楫, 邑令以英哲能通三國語, 召至行中任使. 時世子與大君, 留永柔之德池, 寓土人姜熙卿等庄舍. 叛將韓潤, 以兵留文化, 世子隨行. 孤[固山]以大兵留永柔亦半月, 韓潤渡江津而西, 然後孤[固山]亦行. 邑令謁見世子大君, 以魚菜進而使英哲於孤[固山]軍門. 忽一胡見英哲縛之曰: ‘汝在吾叔阿羅那家, 服事爲奴六七年. 吾叔待之甚厚, 以妻之妹嫁, 而既生二子矣. (...) 吾今執汝以歸, 則吾叔必殺汝也!’” 조원경본.

앞에서 살핀 홍세태본에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이 후경(後景)으로서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그와 달리 조원경본에는 ‘1637년 3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 속에, 조선·명·청 사이의 역사적 대립과 갈등 양상이 좀더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인용문의 ①부분에는, 병자호란 직후 피도(皮島: 楸島)를 둘러싼 삼국 간의 오랜 갈등이 종지부를 향해가는 역사적 정황이 서술되어 있다. 청의 장수 공유덕(孔有德)과 경중명(耿仲明)은 본래 피도를 점유하고 있던 명의 장수 모문룡(毛文龍)의 부하들이다. 이들은 모문룡의 사후, 1633년(인조 11)에 함선과 홍이포(紅夷砲)를 가지고 홍타이지에게 귀순했다. 청군은 그때까지 수군(水軍)의 열세로 고전하고 있었으므로, 홍타이지는 대단히 기뻐하며 이 두 장수의 군대를 특별히 ‘천우군(天佑軍)’이라 칭했다. 1637년(인조 15) 1월 30일, 삼전도(三田渡)에서 인조의 항복을 받아낸 홍타이지는, 그 여세를 몰아 3월에 조선과 청과 명의 강남을 잇는 해로의 요충지인 피도 공격을 준비했고, 4월에 점령했다.⁴⁶⁾ 영유현령 이회(李晦)가 선박 제작 업무를 맡아 조선의 수군을 동원하게 된 것은, 아직 수전(水戰)에 익숙하지 않은 청군의 요구 때문이었다. 김영철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한복판에서 읍령의 지휘를 받으며 군역을 수행한 것이다.

이어지는 인용문의 ②부분은 앞의 홍세태본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이라 더욱 주목된다. 조원경본에는 병자호란 패전 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심양에 질자(質子)로 끌려간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 그에 따라 김영철이 아라나의 조카를 만나 결박당한 사건의 발발과, 후술되는 해결책 - 김영철을 풀어주는 대가로 요구된 연통(煙筒) 30개의 부족분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하사한다 - 모두 당시의 역사적 사건 안에 위치하게 된다.

특히 인용문의 ②부분에 보이는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에 관한 서술은, <김영철유사> 및 홍세태본에 비해 연의소설 <김영철전>이 창작 단계에서 사실(史實)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주요 사례의 하나로 보인다. 소현세자 시강원(侍講院)에서 기록한 『심양장계』(瀋陽狀啓)와 대조해 보면, 조원경본의 해당 서술은 당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은 심양으로 가던 중인 1637년 3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평안도

46)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455~460면 참조.

영유현에 머물렀으며, 그때 평안도의 읍령들이 찬거리 등을 마련해 세자와 대군을 알현하는 일이 잦았다.⁴⁷⁾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작자가 왕실의 문서인 『심양장계』를 보았을 리는 없지만, 당시 유포되어 있던 전승이나 문헌 기록을 참조했기에 이와 같은 구체적인 서술이 가능했으리라 추정된다.⁴⁸⁾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볼 때,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창작 방법으로 ‘사실(史實)을 활용한 역사의 전경화’를 꼽을 수 있다. 연의소설 <김영철전>은 문헌 기록이나 전승을 적절히 참조하여 명·청 교체기라는 격변기 동아시아 역사의 주요 사건을 작중에 전경화하고, 그 속에서 김영철이라는 한 인간의 생애가 어떠한 시대적 의미를 띠는가를 조망했다. 이것은 연의소설 <김영철전>에서 주목되는 창작 방법으로, <김영철유사> 및 전계소설 <김영철전>의 경우와는 그 수준과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2. 허구(虛構) 창조에 의한 부연(敷衍)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두 번째 창작 방법은 ‘허구(虛構) 창조에 의한 부연(敷衍)’이다. 만일 연의소설 <김영철전>이 김영철의 실화와 역사적 사실만 다루었다면, ‘연의’라는 이름으로 일컬을 수 없고, 작품의 서사적 흥미와 감동도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창작 방법은 연의소설 <김영철전>을 ‘연의답게’, ‘소설답게’ 해주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연의소설 <김영철전>에서 ‘허구 창조에 의한 부연’은 크게 두 가지 층위에서 이루어졌다. 그 하나는 ‘개연적 허구’의 층위이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서술하되,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낸다는가, 인물 간 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가, 인물의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한다는가 하는 방식으로 작중의 여러 장면에서 빈번히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연의소설 <김영철전>은 이러한 소설 창작의 일반적 방법 외에도 앞 시기에 쓰여진 선행 서사를 수용해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연적 허구를 만들어 주목된다.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필자의 분석 결과, 조원경본에는 1630년에 창작된 권척(權弼)의 <강노전>

47) 소현세자 시강원(侍講院), 정하영 외 역주, 『심양장계』(瀋陽狀啓), 창비, 2008, 50~58면 참조.

48) 참고로 조원경본의 인용문 ②부분에 대응되는 박재연본의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다: “時王世子與大君, 從高山大軍, 留於永柔.” 박재연본.

(姜虜傳)을 직접적으로 수용한 양상이 확인된다. 주지하듯 <강노전>은 강홍립을 부정적 주인공으로 내세운 한문소설이다. <강노전>의 중반부에는 조선군의 일원으로 심하 전투에 참전한 항왜(降倭) 300인이 포로가 된 뒤, 누르하치와 후금 군대에 반역을 꾀하다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보인다. 이 사건이 조원경본에도 서술되어 있는데, <강노전>의 표현과 구절 단위에서 유사한 표현이 여럿 보인다. 선명한 비교를 위해 <강노전>과 조원경본의 해당 부분 원문을 다음에 나란히 제시한다.

初弘立以降倭三百作爲親軍，常置帳前，㉠至是，薦於滿住曰：“某之帳前三百倭兵，輕疾悍勇，㉡劍術無敵，請獻君前調用。”㉢滿住大喜，即傳令：“來日內庭，觀倭人用劍。”㉣倭人聞令，各自磨刀曰：“吾等受朝鮮撫養多歷年，一朝爲犬羊所驅使，豈不辱乎？今此新磨之劍，先試滿住之頭，未爲不可。㉤吾三百人爲一心，一可當百，掃盡群醜，歸報朝鮮，不亦烈丈夫之事乎？”齊應曰：“諾。”

- <강노전>

弘立出師之初，選降倭三百餘人，以爲帳前親兵，(㉠)至是，言於滿住曰：“北朝與南朝不兩立，如欲經營天下，必用此倭兵。其人勇悍，(㉡)劍術無敵”(㉢)滿住大喜，出令，期以來日，試倭人劍術。(㉣)諸倭聞令，皆潛喜，手磨刀，私相謂曰：(㉤)“吾三百人爲一心，可當百，先刺滿住，次盡殲諸虜，而後護吾將歸朝鮮，誰敢追我？”

- 조원경본

인용문에서 <강노전>과 조원경본의 표현이 유사한 구절을 진하게 표시하고, 대응되는 구절끼리 ㉠-(㉠), ㉡-(㉡)의 방식으로 표시했다. <강노전>과 조원경본의 해당 부분은 그 서술 내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표현도 유사하다. 특히 <강노전>의 ㉡“劍術無敵”과 똑같은 표현이 조원경본에 보이는 점, <강노전>의 ㉤“吾三百人爲一心，一可當百”과 거의 같은 표현인 (㉤)“吾三百人爲一心，可當百”이 조원경본에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이 정도로 유사한 표현은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작자가 그 창작 과정에서 <강노전>을 직접 참조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⁴⁹⁾ 이로써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작자가

49) 흥세태본과 박재연본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보이지만, 그 구절 단위의 표현이 유사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강노전>을 직접 읽은 뒤 그것을 <김영철전>의 창작에 활용한 것은, 조원경본 또는 그보다 앞서 씌어진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작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강노전>이라는 전대 소설을 수용함으로써 개연적 허구를 확장했음이 확인된다. 그렇기는 하나 <강노전>에 도드라져 있는 강홍립에 대한 부정적 형상화가 조원경본에 그대로 수용되지는 않았다. 조원경본을 보면 강홍립의 행위가 <강노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려지고 있다. 이 점에서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작자가 선행 서사를 참조하되 자기대로의 관점과 판단에 따라 취사(取捨)해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조원경본에는 임경업 장군에 관한 선행 서사를 수용한 양상도 보인다. 1640년(인조 18) 4월, 청의 파병 요청으로 임경업을 상장(上將)으로 한 조선 군대가 중국 개주(蓋州)에 출정하게 되었다. 그 역사적 사건이 17세기 후반 이래 써어진 다수의 ‘임경업 서사’에 수용되었다. 그 중 후대의 ‘임경업 서사’에 큰 영향을 미친 초기의 두 작품으로, 이선(李選)의 1688년 작(作) <임장군전>(林將軍傳)과 송시열의 1689년 작(作) <임장군경업전>(林將軍慶業傳)을 꼽을 수 있다. 두 작품 모두에서 임경업 장군이 명의 장군과 밀약하여 조선 군대와 명 군대 간에 거짓 전투를 벌임으로써 사상자를 내지 않았다는 서술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다. 송시열의 <임장군경업전>에는 개주 전투 이후에 임경업 장군이 해엄 잘 치는 조선 병사 두 명을 명 군중(軍中)에 몰래 보내 조선의 충성심과 청의 기밀을 전했다는 서술이 보인다.⁵⁰⁾ 이와 달리 이선의 <임장군전>에는 개주 전투가 개시될 무렵 포로로 붙잡혀 있던 조선 군사 두 명이 명나라 진영에서 작은 배를 타고 와 명 장군의 밀서를 전하자, 임경업 장군이 그 일이 누설될까 염려해 편지를 불태웠다는 서술이 보인다.⁵¹⁾

그렇다면 조원경본은 이선의 <임장군전>과 송시열의 <임장군경업전> 중 어느 작품과 더 가까울까? 조원경본의 다음 대목을 보자.

50) “將軍亦隨機出奇，方其戰時，使砲兵密用土丸。天兵發矢，亦故使不及。故兩軍一無所傷。將軍忽使善水者二卒佯墮水，潛傳本國忠愾於天將之船，因通虜人機密情形。” 송시열, <林將軍慶業傳>, 『宋子大全』 권213, 韓國文集叢刊 115, 한국고전번역원. 이러한 서술은 후대의 임경업 서사 중 홍양호(1724~1802)의 『海東名將傳』 소재(所載) <林慶業>, 성해응(1760~1839)의 <林忠愾傳> 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51) “次蓋州衛二十里外，與明兵相遇，佯爲相戰，互相放砲，聲震海中，而潛令敵者，不鎗而發。明兵亦誠射者，不滿而發。以故兩軍無一人死傷者。又佯破二十九船。方其戰時，我人被擒於明者二卒，自明營乘小船來，傳明將之書，其書曰：‘預爲相報，殊甚可嘉。若擒賊將而來，則當有重賞。’將軍恐事泄，立焚其書。” 이선, <林將軍傳>, 『芝湖集』 권13, 韓國文集叢刊 143, 한국고전번역원.

어느 저녁, 임경업이 영철과 장관(將官) 이수남(李秀南)에게 은밀히 명령하여 작은 배를 타고 가 명의 장군에게 편지를 전하게 했다.

“내일 전투시에 우리 군대는 탄환을 제거할 것을 약속드리니, 명나라 군대도 화살촉을 제거해 주십시오. 합전(合戰)하게 되면 우리는 거짓으로 패배하여 명나라에 항복할 것입니다.”

명 장군이 편지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그날 밤에 답서를 써서 두 사자(使者)에게 주고, 각각 백금 30냥과 청포 20필을 하사했다.⁵²⁾

인용문에서 보듯, 조원경본에는 개주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김영철과 장관(將官) 이수남(李秀南)이 배를 타고 가 임경업 장군의 밀서를 명나라 장군에게 전하고, 그 답서를 받아오는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 이처럼 조원경본에 보이는, 전투에 앞서 밀서를 주고받는 모티프, 두 명의 병사가 배를 타고 잠행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모티프는 이선의 <임장군전>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생각된다.⁵³⁾

그렇기는 하나 조원경본의 ‘임경업 서사’는 이선의 <임장군전>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임장군전>에는 명나라 진영에 밀파된 핵심 인물로 승려 ‘독보(獨步)’가 등장한다. 그와 달리 조원경본에는 독보라는 인물에 대한 서사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역사적 진실은 무엇인가? 1640년(인조 18) 4월 15일, 임경업 장군은 “중군(中軍)의 이순남(李舜男), 승려 독보(獨步), 조선인 8명”을 배에 태워 풍랑을 빙자해 일부러 명나라 진영으로 보냈다. 그때 승려 독보를 통해 조선 군대가 명나라 군대와의 교전을 피하고자 한다는 임경업 장군의 밀서를 전달했다는 것이 근래 밝혀진 사실이다.⁵⁴⁾

그런데 역사적 진실 및 <임장군전>의 서술과 달리, 조원경본에는 독보라는

52) “一夕，慶業潛令英哲及將官李秀南，乘小船遺明將書：‘約明日戰時，我兵去丸，明兵去金。合戰我當詐敗而降明。’明將見書大喜，即夜作報書授兩使者，各賜以白金三十兩，青布二十疋。” 조원경본.

53) 참고로 흥세태본에는 김영철이 단독으로 임경업 장군의 밀서를 전하는 임무를 맡고, 알리바이를 위해 물 길는 병사 2명이 동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54) 이재경, 『병자호란 이후 朝明 비밀첩축의 전개』, 『군사』 제10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253면 참조. 이재경은 동아시아 역사학계에서 근래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中國明朝檔案總雁』 등의 중국 쪽 사료를 근거로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한편 이재경의 연구를 참조할 때, 조원경본에 등장하는 ‘장관(將官) 이수남(李秀南)’이라는 인물은 당시 평안도 중군(中軍)에 소속된 ‘이순남(李舜男)’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물에 대한 서사가 일체 소거되어 있다. 반면 이선의 <임장군전>이나 송시열의 <임장군경업전>에는 언급되지 않은 ‘장관 이수남’의 이름이 조원경본에 거론된 점을 볼 때,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작자는 창작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한 정도로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작자가 독보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고 봄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작자가 흥미로운 인물로 주목될 만한 독보를 일부러 소거하고 임경업의 활약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밀서 전달자로서 김영철의 서사적 역할을 부각시키려 했다고 생각한다.⁵⁵⁾

이상의 논의를 통해 연의소설 <김영철전>은 개연적 허구를 창조함에 있어 소설 일반의 방법을 활용함은 물론, 앞 시기의 문학작품을 서사적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변형해 활용하는 방법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연의소설 <김영철전>에는 ‘개연적 허구’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사실과 전혀 무관하게 자유롭게 창조된 ‘순전(純全)한 허구’도 보인다. 이제 이 두 번째 층위의 허구 창조 양상을 살펴보자.

그 하나의 예로, 1636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의 북경(北京) 사행(使行)에 대한 서술 부분을 꼽을 수 있다. 조원경본을 보면, 1636년 가을에 김영철의 고향 친구인 이연생이 다시 도선주(都船主)가 되어 사신을 따라 중국 등주에 간다. 그곳에서 이연생은 김영철의 명나라 처 전씨(田氏) 및 두 아들 득달(得達)·득길(得吉)을 만나, 그들의 간청을 못 이겨 김영철이 조선으로 탈출했음을 밝히고 그 안부를 전한다. 하지만 이 부분의 서사가 순전한 허구임은 권혁래의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다.⁵⁶⁾ 김욱(金旭)을 정사(正使)로 한 1636년의 사행단은 평양의 석다산(石多山)에서 출항해 해로(海路)로 영원위(寧遠衛)에 가 거기에 정박한 뒤 육로로 북경까지 이동했으며, 등주에는 가지도 않았다.⁵⁷⁾ 따라서 1636년 등주를 배경으로 한 서사는 순전한 허구에 해당된다.

55) 조선 후기 서사 장르에 등장한 ‘독보’라는 인물 형상의 전변에 대해서는 김일환, 『獨步』 캐릭터의 탄생과 변모 과정, 『영주어문』 제43집, 영주어문학회, 2019)이 참조된다.

56) 권혁래, 『<김영철전>과 해로사행(海路使行)의 수용양상, 『우리어문연구』 제31권, 우리어문학회, 2008, 105~111면 참조.

57) 1636년 가을, 북경행 사행단은 음력 7월 16일에 평양의 석다산(石多山)에서 출항하여 해로로 칠산취(鐵山嘴), 쌍도(雙島), 남신구(南汛口), 북신구(北汛口), 각화도(覺華島) 등을 거쳐 8월 21일에 영원위(寧遠衛) 앞바다에 이르러 정박했다. 김욱, 『朝京日錄』, 연행록선집, 한국고전번역원, 병자년(丙子年, 1636) 7~8월조 참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순전한 허구가 작중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 물음을 풀기 위한 실마리를 흥세태본에서 찾을 수 있다. 흥세태본에도 조원경본에 비해 간략하나마 1636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의 북경(北京) 사행(使行) 때 이연생이 김영철의 명나라 처 전씨 및 두 아들과 만나는 사건이 서술되어 있다. 다음이 그 해당 대목이다.

병자년(丙子年, 1636) 가을, 연생은 다시 사신 일행을 따라 배를 타고 등주에 갔다. 영철의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전유년과 함께 와서 영철의 소식을 묻자 연생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뗐다.

이듬해 사신 일행이 돌아오는 길에 영철의 아내가 다시 와서 물었다.

“들리는 이야기로 조선이 이미 오랑캐에게 항복해서 이 뱃길도 이제부터는 끊어진다고 하더군요. 제발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제 마음이 풀릴 겁니다.”

연생은 그제야 영철의 소식을 자세히 말해 주었다. 전유년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영철은 대장부일세! 끝내 그 뜻을 이루었으니.”⁵⁸⁾

이 인용문의 사건은 순전한 허구이다. 필자가 본고의 서두에서 흥세태본의 장르를 ‘전계소설’로 규정한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에 있다. ‘거사직서(據事直書)’를 서술의 기본 원리로 삼는 전(傳)에서는 이와 같은 순전한 허구가 허용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흥세태본의 장르를 전으로 귀속시키고자 한 선행 연구의 관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된다.⁵⁹⁾

여러 번 언급했듯, 흥세태본은 김응원이 쓴 <김영철유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전계소설인 흥세태본과 연의소설인 조원경본에 공통적으로 순전한 허구가 포함된 것은, 일차적으로 두 계열 소설 모두가 바탕으로 삼은 <김영철유사>에서 비롯된 결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⁶⁰⁾

58) “丙子秋, 連生又隨使船往登州. 英哲妻, 携二子, 與有年來, 問英哲. 連生辭不知. 及明年, 使還, 英哲妻又來問曰: ‘朝鮮聞已降虜, 此船路從此絕矣. 願子一言以釋我心!’ 連生乃具言之. 有年歎曰: ‘英哲, 大丈夫哉! 必遂其志.’” 흥세태본.

59) 이승수, 앞의 논문이 흥세태본의 장르를 ‘전(傳)’으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60) 그렇다면 김응원은 왜 이러한 순전한 허구를 <김영철유사>에 추가했을까? 만일 김응원이 상상을 보태어 부연하지 않았다면, 김영철의 후금 가족과 명나라 가족 간 서사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했을 것이다. 조원경본을 보면, 김영철의 생애 전반에서 후금의 가족과 관련된 서사는 지속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그에 반해, 김영철의 명나라 처와 그 자식들에 대

그렇기는 하지만 필자는 조원경본 등이 연의소설 계열로 재탄생하는 과정에서 <김영철유사>에 비해 허구 창조를 전면화함으로써 질적 상승을 이루었으리라고 추론한다. 앞에서 살핀 홍세태본의 인용문 중, 김영철의 소식을 알려 달라고 이연생에게 간청하는 명나라 처 전씨의 발언이 조원경본에는 다음과 같이 확장되어 더 절절히 서술되어 있다.

“매번 동방(東方)의 사행선(使行船)이 여기에 올 때마다 찾아가 제 남편의 소식을 알아보고 싶었으니, 비록 [소식을] 듣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동국인(東國人)을 보니 제 남편을 보는 듯했습니다. 이제 천운(天運)이 불행하여 조선은 오랑캐에게 항복하였으므로 동방의 배가 북쪽으로 돌아간 후에 다시는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곳과 이곳의 소식이 이로부터 영영 끊어질 것이니, 생각이 이에 이르자 첩은 뼈가 사무치고 애간장이 아픕니다. 당신도 사람일진댄 홀로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당신께서 첩에게 명백히 말씀해 주셔서 첩의 백년 한(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 만약 끝내 소식을 듣지 못하면 살면서 현재에서는 항상 원망을 품을 것이고, 죽어서 지하에서는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⁶¹⁾

인용한 대목에서 보듯 조원경본의 경우 전씨의 말에 대한 곡진한 재현이 이루어지고 있다. 홍세태본으로 미루어 판단컨대 <김영철유사>에서 전씨의 대화가 꼭 이리 곡진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비단 이 대목뿐만 아니라 전씨가 김영철과의 혼인을 고민하는 대목이나, 김영철이 몰래 조선으로 귀환할까 노심초사하는 대목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이처럼 조원경본은 인물을 형상화하고 사건을 서술함에 있어 허구를 활용하여 서사성을 확장

한 정보는 작품 후반부에서 소략한 편이다. 따라서 김응원이 1636년 김육의 사행 경로를 실제와 달리 등주로 설정함으로써 김영철의 명나라 처 전씨 및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한 것은, 후금 가족과 명나라 가족 간 서사를 적절히 안배하고자 한 결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 ‘과연 명나라 처 전씨와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작자로서의 자연스러운 ‘말하기 욕망’이 순전한 허구를 창작케 한 주요 동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와 동시에 작품의 후반부에서 김영철의 후금 가족과 더불어 청 태종이 부각되는 쪽으로 서사가 전개된 점도, 김응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법하다. 이 또한 순전한 허구를 창작케 한 다른 하나의 주요 동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1) “每東方使船來此，欲訪知吾夫消息，雖不可聞，猶見東國人，如見吾夫。今天運不幸，朝鮮降虜，東方之船，北歸之後，不可復來，彼此聲影，從此永絕，念之至此，使妾骨悲而腸痛。子亦人也，獨無惻隱之心乎？願子與妾明白說道，解妾百年之恨也。今日逢君，若終不得聞，則生常含怨於一世，死不瞑目於地下。” 조원경본.

하거나 심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허구를 전면화하는 방식이 연의소설 계열의 후대 텍스트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방금 살핀 전씨와 이연생의 만남 부분은, 박재연본과 나손본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확대되어 있다. 먼저 박재연본을 보면, 이연생이 조선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때, 전씨가 자신의 편지를 김영철에게 전해줄 수 없는가 묻자 이연생이 위험한 일이라 안된다고 답하는 대화가 부연되어 있다. 이 대화는 조원경본에 없는 내용이다. 한편 나손본을 보면, 박재연본보다도 허구가 더욱 확대되어 전씨가 편지를 써서 이연생을 통해 김영철에게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편지의 전문까지 소개된다. 그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낭(郎)이 어찌 첩 속이기를 호녀(胡女)와 같이 하느냐. 그 낭을 위한 계규(계교)計畵는 가히 잘 하라한다. 허러니와 홀로 첩의 신세는 생각지 않았느냐. 낭은 돌아가 효손(孝孫)이 되려니와 첩은 머물러 원배(遠配) 되니 행실로 이르면 누 낭을 착하다 일컫지 아니 하리오마는 첩 대접하기를 심히 박(薄)히 하니 어찌 이를 차마 할 것이 리오마는 낭이 한번 동(東)으로 감으로부터 일신(一身)이 혈혈(子子)하니 누로 더불어 의지하며 두 아이 고고(孤孤)하니 누를 더불어 아비라 하리오. (...) 간담(肝膽)이 비록 끊어졌으나 정(情)은 오히려 끊지 않았는지라. 살아서 서로 좃지 못하나 죽어서 서로 좃기를 원하노라.⁶²⁾

인용문에서 보듯 이 편지를 통해 전씨의 애통한 마음이 더욱 곡진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비단 조원경본뿐만 아니라 연의소설 계열의 여러 텍스트에서 허구의 창조가 상당히 다채로운 양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볼 때,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주요 창작 방법의 하나로 ‘허구 창조에 의한 부연’을 꼽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연의소설 <김영철전>에서 허구의 창조가 사실(史實)을 바탕으로 허구를 보태는 ‘연의적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허구 창조에 의한 부연’이라는 창작 방법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조원경본과 같은 긴 편폭의 <김영철전>은 서사의 밀도와 깊이를 확보하면서 새로운 소설적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62) 필자가 임의로 원문을 현대 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했다. 나손본, 33~34면.

IV. 맺음말

조원경본은 연의소설 계열 <김영철전> 가운데 ‘김영철 서사’의 효시인 김응원의 <김영철유사>에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텍스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원경본을 중심으로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창작 방법을 원리적 차원에서 고찰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주요하게 활용되었음을 밝혔다. 첫째는 사실(史實)을 활용한 역사의 전경화이다. 둘째는 허구 창조에 의한 부여이다. 조원경본은 이 두 가지 창작 방법을 통해 김영철이라는 실존 인물의 파란만장한 삶을 사실에 기초하되 허구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감동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었으며, 김영철의 삶을 매개로 17세기 동아시아의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생생하고 쫓진하게 재현할 수 있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거기에 허구를 보태어 서사를 확장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글쓰기 방법을 ‘연의’로 일컫는다는 사실을 환기할 때, 조원경본의 주요 창작 방법 두 가지는 ‘연의적 원리’에 다름 아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흥세 태본으로 대표되는 ‘전계소설 <김영철전>’과 구별하여, 조원경본 등 보다 긴 편폭의 <김영철전>을 ‘연의소설 <김영철전>’으로 새로 명명하였다.

조원경본은 비록 원작은 아니지만 연의소설 계열 <김영철전>의 현전 자료 중 가장 초기의 텍스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창작 방법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 조원경본을 중심으로 서상(敍上)의 논의를 펼쳤으며, 연의소설 계열에 속하는 다른 이본들-나손본, 박재연본, 서인석본-의 경우, 논증 과정에서 제한적인 비교의 자료로 삼았다. 국문본인 나손본과 서인석본, 국문본의 재한역본(再漢譯本)인 박재연본은 모두 각각의 개성적인 특징을 지니면서 연의소설 <김영철전>의 스펙트럼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하고 있다. 연의소설 계열에 속하는 이들 텍스트가 세부적 측면에서 조원경본과 비교해 어떠한 미적·주제적 전변(轉變)을 보여주며, 그 전변의 의미는 무엇 인지를 탐구하는 작업은 후속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1. 자료

- <金英哲傳>, 조원경 목사 소장본(일명 조원경본).
<金英哲傳>, 박재연 교수 소장본(일명 박재연본).
<김영철전>, 서인석 교수 소장본(일명 서인석본).
<김철전>, 단국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일명 나순본).
홍세태, <金英哲傳>, 『柳下集』 권9, 韓國文集叢刊 167, 한국고전번역원.
홍세태, <金英哲傳>, 『韓國漢文小說校合句解』, 박희병 표점·교석, 소명출판, 2005.
홍세태, <김영철전>, 『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박희병·정길수 역, 돌베개, 2007.
- 권칙, <姜虜傳>, 『韓國漢文小說校合句解』, 박희병 표점·교석, 소명출판, 2005.
김육, 『朝京日錄』, 연행록선집, 한국고전번역원.
성해응, <林忠愍傳>, 『風泉錄』, 『研經齋全集續集』 책15, 韓國文集叢刊 279, 한국고전번역원.
송시열, <林將軍慶業傳>, 『宋子大全』 권213, 韓國文集叢刊 115, 한국고전번역원.
이동완, 『金英哲傳後識』, 『茅山集』 권3, 한국역대문집총서 579, 경인문화사.
이민환, 『柵中日錄』, 『紫巖集』 권5, 韓國文集叢刊 82, 한국고전번역원.
이선, <林將軍傳>, 『芝湖集』 권13, 韓國文集叢刊 143, 한국고전번역원.
이시항, 『金將軍遺事』,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홍세태, <讀金英哲遺事>, 『柳下集』 권13, 韓國文集叢刊 167, 한국고전번역원.
- 『국역 國朝人物考』,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소헌세자 시강원(侍講院), 정하영 외 역주, 『심양장계』(瀋陽狀啓), 창비, 2008.
김헌범 편, 『新羅金氏二千年史』, 寶蓮閣, 1982.
이민환, 중세사료강독회 역, 『책중일록』, 서해문집, 2014.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홍양호, 해천서당 편역, <林慶業>, 『海東名將傳』, 박이정, 2014.

2. 단행본

- 박희병,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렙, 2019.
송하준, 『조선 후기 역사소설과 민족 정체성의 재구성』, 학자원, 2015.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劉小萌, 이훈·이선에·김선민 역,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2013.

陳平原, 이보경·박자영 역, 『중국소설사: 이론과 실천』, 이룸, 2004.

3. 논문

- 권혁래, 「<김영철전>과 해로사행(海路使行)의 수용양상」, 『우리어문연구』 제31권, 우리어문학회, 2008, 91~119면.
- _____, 「<김영철전>의 작가와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제2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93~128면.
- _____, 「나손본 『김철전』의 史實性和 여성적 시각의 면모」, 『고전문학연구』 제15권, 한국고전문학회, 1999, 113~147면.
- 김유진, 「<三韓義烈女傳>의 창작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김일환, 「'獨步' 캐릭터의 탄생과 변모 과정」, 『영주어문』 제43권, 영주어문학회, 2019, 145~177면.
- 박경선, 『역주 『책중일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박종배, 「조선시대 무학 별설론(別設論)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36권 4호, 한국교육사학회, 2014, 51~78면.
- 박희병, 「17세기 동아시아의 戰亂과 民衆의 삶-〈金英哲傳〉의 분석」, 『韓國 近代文學史의 爭點』, 창작과비평사, 1990, 13~51면.
- 서인석, 「국문본 <김영철전>의 이본적 위상과 특징」, 『국어국문학』 제157호, 국어국문학회, 2011, 115~142면.
- 송하준, 「새로 발견된 한문필사본 <김영철전>의 자료적 가치」, 『고소설연구』 제35집, 한국고소설학회, 2013, 239~268면.
- 심승구, 「壬辰倭亂 중 武科의 運營 實態와 機能」, 『朝鮮時代史學報』 제1집, 조선시대사학회, 1997, 69~122면.
- 양승민·박재연, 「원작 계열 <金英哲傳>의 발견과 그 자료적 가치」, 『고소설연구』 제1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4, 85~110면.
- 이송희, 「『金將軍遺事』 연구 - 김응하 『충렬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제68집, 2019, 13~39면.
- 이승수, 「<김영철전>의 갈래와 독법: 흥세태의 작품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107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293~317면.
- 이재경, 「병자호란 이후 朝明 비밀접촉의 전개」, 『군사』 제10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233~278면.

Creation methods of Yeon-eui(演義) novel *Kimyoungcheoljeon*

Kim, Soo-young

The *Kimyoungcheoljeon*, owned by Jo Won-gyeong, refers to a text transcribed by a person named Park Jeung-dae around 1762, and is the closest to *Kimyoungcheolyousa*, among the relatively long texts of *Kimyoungcheoljeon*. In this paper, the text owned by Jo Won-gyeong is examined, revealing that two creative methods were mainly used. The first is the foreground of history using historical facts. The second is the augmentation by fictional creation. Using these two methods, the text owned by Jo Won-gyeong was able to express all the twists and turns in the life of Kim Young-cheol based on facts, while adding fiction in a touching way.

In summarizing the two creative methods of *Kimyoungcheoljeon*, owned by Jo Won-gyeong, it can be said that the 'Yeon-eui(演義)'s Principle', the traditional East Asian writing method, was mainly use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relatively long *Kimyoungcheoljeon*, represented by the text owned by Jo Won-gyeong, was renamed as 'Yeon-eui novel *Kimyoungcheoljeon*', in order to distinguish it from the 'Jeongye(傳係) novel *Kimyoungcheoljeon*' written by Hong Se-tae.

keywords: *Kimyoungcheoljeon*, *Kimyoungcheoljeon* owned by Jo Won-gyeong, Yeon-eui(演義) novel, Methods of Creation, *Kimyoungcheolyousa*

접수일자: 2020. 9. 30. 심사기간: 2020. 10. 1.~2020. 11. 10. 게재결정: 2020. 11. 10.
